괴테클럽 독서 감상문			
작성자	정승준	**토론일**	7/1
도서명	데미안	**저자**	헤르만 헤세
별점	4/5		
만족스러운 점과 아쉬운 점	근대 시민 소설이 들어선 이래로 여러 자전적인 소설이 나왔지만 헤르만 헤세의 데미안은 그중에서도 형이상적인 특색이 강하게 드러나는 작품이다. 소설의 내용은 주인공인 싱클레어의 내면을 다루는 부분과 인물들 간의 정체성에 관한 대화로 구성되어서 작품이 전달하고자 하는 주제를 깊고 선명하게 파악할 수 있다. 하지만 인물들의 내면과 정체성에 관한 대화가 중심이 되는 만큼, 사회에 관한 내용이나 인물들의 현실적이고 일상적인 내용은 적기 때문에 작품에 몰입하거나 공감하기는 힘든 편이라고 생각한다.		
한줄평	근대에 들어서며 탄생한 개인이라는 존재가 주체성을 찾는 동시에, 세상에 휘둘리지 않고 그들과 공존할 방안을 모색한 작품.		
기억에 남는 표현이나 문장들			
지금까지 완전히 자기 자신일 수 있었던 사람은 하나도 없었다. / 동물의 일원으로서 우리의 출생에 붙어다니는 온갖 찌꺼기를 죽을 때까지 떨쳐버릴 수가 없다. / 모든 인간이 자기 자신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파괴를 당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 출생 후 처음으로 나는 죽음을 맛보았다. / 그는 자신의 문제를 추구하는 탐구자처럼 보였다. / 나는 밝고도 깨끗한 세계에 살고 있었으며, 일종의 아벨이었다. 그리고 나는 지금 대단히 깊게 '다른 세계' 속에 틀어박혔고, 떨어지고, 가라앉았다. / 그러나 해방을 시켜준 자가 그 기적을 달성하자마자 나는 그를 무시해 버렸다. / 나는 클로머에 대한 종속을 새로운 종속으로 대체할 필요가 있었다. 왜냐하면 나는 혼자서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맹목적으로 아버지와 어머니에의 예속, '밝은 세계'로의 예속을 선택했다. / 허용된 밝은 세계 속으로 기어들어가 숨어야 된다는 원시적 충동이 나 자신 속에 살고 있다는 것을 새롭게 발견해야 되는 그런 나이가 되었다. / 그때도 그의 눈은 깊고도 조용한, 거의 환상적인, 그러나 정열을 잃지 않은 신중성을 띄고 있었다. / 시간을 초월해서 우리들이 살고 있는 것과는 다른 시대의 인상이 새겨진 듯이 생각되었다. / "사람은 항상 물어야 되고 의심해야 돼." / "세상의 절반이 은폐당하고 또한 묵살된 거야." "우리는 신에게의 봉사와 함께 악마에게의 봉사도 해야 돼." / 두 눈은 꼼짝 않고 내면으로, 또는 아주 먼 곳으로 향해 있었다. 지금 그는 완전히 자기 속으로 침잠해 버렸다. / 나는 사랑하고 존경할 대상을 가졌고 다시 이상을 가졌으며, 나는 다시 내 본질 속에 있었다. 숭배하는 모습의 노예와 하인으로서. / 그때 점점 그것이 베아트리체도 데미안도 아니고, 나 자신이라는 느낌이 솟아올랐다. / '새는 알을 깨고 나온다. 그 알은 세계이다. 태어나려는 자는 한 세계를 파괴해야만 한다.' / '신적인 것과 악마적인 것을 결합하는 것' / 나는 나를 둘러싸고 있는 현실세계보다는 내 마음속에 있는 이 모습들과 그림자들과 보다 진실하고 보다 생기있게 교		

제를 했고, 같이 살고 있었다. / “특히 당신이 연주하는 것 같은 아무 제한을 받지 않은 음악을 좋아합니다.” / “당신을 날게 하는 그 힘은 누구나가 가지고 있는 인류의 큰 재산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곧 두려움을 자아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처럼 나는 것을 포기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법규가 정하는 대로 보도를 거니는 편을 택합니다.” / 나는 내 동년배들과 어울려 생활하거나 기쁨을 같이 나눌 수가 없었다. / “당신이 흠잡을 데 없이 정상적으로 되어버리는 날엔 아브락사스는 당신 곁을 떠납니다.” / “그러나 일단 다른 것을 알고 나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걸어가는 길을 선택할 자유가 없어집니다.” / “나는 내 꿈속에서 살고 있어. 그러면 이윽고 그것이 내 내부에 있는 것을 느끼게 돼. 마침내는 내 몸 전체가 그것으로 꽉 차게 되지. 그런 상태에서는 어느 것도 나를 동요시킬 수 없게 되는 거야,” / “너는 너 자신에 대해 생각을 하고 정말로 너의 본질에서 솟아나오는 것을 행동하면 되는 거야,” / 피스토리우스는 이제 지금까지 나를 이끌어 주던 그가 아니며, 내게 주던 것을 자기 자신에게는 줄 수 없게 된 것이다. 그가 나를 어떤 길로 인도했으니 그것은 지도자인 그를 초월하여 그로부터 떠나지 않으면 안 되는 길이었다. / 성장한 사람에게는 자기 자신을 찾고, 자기 자신 속에 확고해지고, 목적지가 어디든 간에 자기 자신의 길을 더듬어 전진한다는 한 가지 일밖에는 아무런 의무도 없다. / 누구에게나 진정한 천직은 자기 자신에 도달하는 것 한 가지뿐이었다. / “나도 가엾고 약한 개와 같은 존재에 불과합니다. 따스한 장소와 약간의 먹이를 필요로 하고, 때때로 자기의 동류가 가까이에 있는 것을 느끼고 싶어하는.” / “우리는 남과 다르게 있는 것, 반항하는 것, 유별난 것을 욕망하는 가운데 은밀한 만족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길을 끝까지 가려면 그런 것도 떨쳐버려야 합니다.” / 내가 수강한 철학사 강의는 대학생들의 행동과 마찬가지로 비본질적이고 기계적이어쌌. 모든 것이 판에 박은 듯이 단조롭게 보였다. 누구나가 똑같은 행동을 했고, 열기 띤 명랑한 소년 같은 얼굴 표정은 모두가 똑같이 덜돼 보였다. / 처음으로 외부 세계가 나의 내부 세계와 순수하게 일치했다. 그것은 바로 영혼의 축제일이었다. 그럴 때면 인간은 살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다. / “인간은 자기의 꿈을 찾아야 해요. 그러면 세계는 가벼워질 거예요. 그러나 영속적인 꿈은 없어요. 새 꿈으로 교체됩니다. 우리는 어떤 꿈도 붙들어 두려고 해서는 안 돼요.” / “당신의 운명은 당신을 사랑하고 있어요. 당신이 그것에 충실하기만 하면, 꿈속에서와 같이 그것은 언젠가는 완전히 당신의 것이 될 거예요.” / 우리는 대다수의 인간들과 경계선에 의해서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보는 것에 의해서 분리되어 있었다. 우리의 과제는 하나의 모범을 제시하는 것. 다른 생활 방법의 가능성을 알려주는 데 있었다. / 우리 사이의 정신적인 공통점은 다만 저마다 상대방의 비밀인 생의 꿈을 존중한다는 것뿐이었다. / 캄캄한 거울 위에 나 자신의 모습이, 이제까지 내 친구이며 길잡이였던 데미안과 꼭 닮은 나 자신의 모습이 보이는 것이다.

감상

싱클레어의 가족은 종교와 철학이라는 두 축으로 구성된 서구의 이성적 세계관을 지향하는 가정이었고, 이로 인해 싱클레어는 이성 중심이라는 틀 속에서 자라게 된다. 그러나 이성 중심적 세계관만을 따르는 것을 지양하는 데미안을 만나며 싱클레어의 삶은 큰 변혁을 맞는다. 데미안은 대다수의 사람들이 부여받고 다시 부여하기를 반복하는 세계관을 깨야지만 상대주의적인 관점에서 세상을 더 넓고 다양하게 볼 수 있음을 주장한다. 하지만 인간

은 천성적으로 자신이 타고난 틀에 안주하고 싶어 하며, 기존의 틀을 깨고 새로움을 받아들이는 것을 고통스러워하므로 싱클레어 또한 데미안의 영향으로 인해 방황과 정체성의 회의를 겪으며 데미안을 미워하기까지 한다. 그러나 이후에 데미안과 피스토리우스 등 여러 사람의 도움을 받으며 성장한 그는 알을 깨고 그것에 익숙해지는 성장통을 견뎌내며 실존적이고 주체적인 존재로 거듭난다.

헤르만 헤세는 데미안과 싱클레어를 비롯한 여러 인물을 바탕으로 개인이라는 한 존재가 획일화된 틀에서 벗어나 혼란을 겪지만 자신만의 정체성을 추구하며 실존으로 거듭나는 과정을 담아낸다. 독자는 이를 통해 자신 또한 나다운 존재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행동해야 하며, 앞으로는 어떠한 일과 고난이 있을지를 알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소설은 개인이 주체성이라는 목표에 도달하는 것을 돕는 이정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작품을 써낸 헤세의 업적은 학문적인 관점에서 볼 때 니체가 이성 중심의 세계관만을 중시하는 당대의 통념에 반기를 들며 퍼뜨린 실존이라는 개념의 시작과 전후의 실존주의자들이 그것을 이론으로 정립하는 과정까지를 연결하는 징검다리의 역할을 했다고도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헤세는 사람들이 자신의 의사와 별개로 태어나면서부터 부여받는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벗어나 자신의 존재와 본질, 실존 등에 관해서 탐구하며 기투적인 존재로, 자신에게 내재한 표식을 긍정하는 존재로 거듭나기를 바란 것이다.